



최우수상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적응의 연관성

-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잠재전이분석 -

| 탁현삼 · 차준호 |

본 논문 내용은 저자의 견해이며, 통계청 및 통계개발원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적응의 연관성

-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잠재전이분석 -

탁현삼* 차준호**

요 약

최근까지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적응 간의 연관성에 관하여 종단적 확장 모형을 통한 실증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의성에 주목하여 기존의 변수중심적 접근법이 아닌 사람중심적 접근법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종단적 잠재전이분석으로 확장하여 다문화 초기 청소년들이 경험한 사회적 지지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들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사회적 지지를 크게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이웃지지로, 사회적 적응을 크게 소속감, 주관적 기대감, 삶의 만족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분석에는 다문화청소년패널 1기패널을 활용하였으며, 4차년도에 만 13세, 9차년도에 만 18세인 다문화 청소년 1,016명을 최종 연구표본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13세를 전기 청소년기, 18세를 후기 청소년기로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 전기 청소년기에 높은 지지집단에 속한 다문화청소년은 높은 적응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중간 지지 집단, 낮은 지지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공변인으로 처리한 전기 청소년기의 성별, 주관적 가정형편, 자아존중감, 우울은 잠재프로파일의 전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기존 연구와 다르게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적응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학사과정,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통계인턴

**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학사과정

I. 논의 배경

오늘날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이 확대됨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숫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한 교육기본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국내 다문화청소년은 16만 8645명이다. 이는 2013년 5만 5780명보다 3배 이상의 수치로, 이들은 당시 전체 학생의 0.9%에 지나지 않았으나 2022년에는 3.2%로 크게 확대되었다. 물론 심각한 저출산 경향은 다문화가정의 형성과 출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에서 인구동향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2011년 다문화 혼인과 출생신고 건수가 각각 3만 700여건과 2만 2900여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1만 3900여건과 1만 4300여건으로 떨어졌고, 비중도 7.2%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다문화 출생 비중은 2015년 4.5%에서 2021년 5.5%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의 하락폭보다 한국인의 혼인과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기조가 더욱 강력한 상황에서 이들이 국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해당 집단의 사회적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들은 지금도 언어장벽과 주변의 차별적 시선 등으로 민족, 국가, 문화, 인종적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한국 사회의 적응 및 융합의 측면에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006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 한민족과 같은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글로벌한 국민정체성 확립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문화 정책은 자연스럽게 문화적 다양성을 취하는 형태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민화(nationalization)의 형태를 띠고 있다(김현미 2015, 89-90). 더불어 이전부터 다민족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던 국가들은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이 높은 연계성과 통합성을 보이며 일관된 목표와 방향성을 갖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간 분리성이 매우 강하여 정책적 일관성과 연계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김미나 2009, 218).

또한 다문화정책 기조는 교육과 가족정책에도 반영되었으나 다문화학생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를 보였다. 가령 국가와 민족의 개념이 구분된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특정 민족의 ‘다름’을 받아

들이는 것을 다문화주의의 정의로 설정하고 있다(박종대·박지해 2014, 36). 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오랜 기간 일치한 역사로 인하여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는 인식이 여전히 유지되어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다문화 집단에 대한 배타적 시선이 공공연히 드러난다(ibid, 36). 이 때문에 실제로 국내의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은 다른 또래에 비하여 자존감과 의사소통능력,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에 관한 회복탄력성이 낮다(백지숙·김진·정효경 2014, 137-139). 또한 이러한 차별적 태도에 기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과 진로발달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전재수·임운택 2017, 57). 이처럼 사회인구학적 장애물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다문화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한국인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 성취도로 이어진다(김평화·윤혜미 2020, 43).

그런데 이 시기에 경험하는 주위의 시선과 반응은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매우 강력한 요소로 작용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실재적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Erikson 1950). 사물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유아기나 아동기를 벗어났으나 완전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않은 과도기의 위치에서, 이들의 생물학적인 변화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식과 그 수준에 따라 청소년은 이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고, 불안정하게 받아들여 스스로 더욱 큰 내적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다문화 학생은 생물학적인 변화에서 한국인 학생과의 신체적 차별성을 더욱 크게 느끼며, 민족적 박탈감, 불편한 시선, 인종과 민족에 관한 한국인의 낮은 이해도 등 사회적 원인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인 학생보다 주변의 시선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족과 친구, 선생님 등 사회적 측면과 함께 문화와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며 이들이 지닌 문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 국내 연구들은 청소년기를 전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로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표본을 대상으로 사회적 특성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실증 및 해석학적 연구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 초기에 투사된 요인들이 후기 청소년의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연관성을 검토한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미 해외에서는 청소년을 초기, 중기 및 후기로 나누어 다룬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Windle, 1990; Clark-Lempers et al. 1991; Lempers and Clark-Lempers 1991; Greenberger and Chen 1996).

국내에서 실질적인 청소년기로 보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5년간의 짧은 기간에 벌어지는 신체적 성장과 정신 및 인지적 변화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또한 이제 막 아동기에서 벗어난 이들보다 성인이 되는 청소년들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며(Boelema et al. 2014, 184),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회적 맥락의 파급력이 청소년 전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기별, 연령별로 구분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실증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다(Ge and Conger 1999, 450).

본 연구의 내용은 다문화청소년이라는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시기적 차이와 사회심리학적 특수성에 주목한 실증연구의 성격을 띠며,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적 취약점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데 적절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도 정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여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기치(旗幟)하에 다문화청소년의 사회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여러 국가적 대응마저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근본적이고 공적인 담론 없이 관(官)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다문화 개념을 따르며,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하는 주체에 따라 다문화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아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한계가 있다(홍기원 2009, 185-187). 이에 젊은 다문화세대가 성장하고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회와 능력을 갖추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정책 수립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먼저 다문화주의와 청소년기에 관한 각종 이론 및 실증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이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종단적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 전기의 사회적 지지 수준과 후기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수준의 관계성 및 공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연구결과가 지니는 의미를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사회적 맥락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의 사회심리학 발달이론(stages of psychosocial

development)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의 이론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심리성적 발달이론(psychosexual development theory)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나, 프로이트의 이론에 사회적 영향과 청소년기 이후의 성장과정까지 언급하면서 삶 전체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Carrey 2010, 248).¹⁾ 해당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청소년기가 되면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로써 정체성을 확립한다(Erikson 1950). 즉,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위치할 자리를 찾고(나는 누구인가?), 자기가 속한 집단에 공헌하기 위하여 고민하는(나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즉, 그의 이론은 사람이 성적 욕구를 우선으로 추구한다는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이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사회적 배경이 청소년기의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생물학과 심리학에 사회학을 접목하여 새로운 이론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적절한 수준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고자 사회적 위치로부터 자신을 탐색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개인은 단계를 거치며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청소년의 경우 정체성의 수준을 놓고 고민한다. 자아 정체성(ego identity)이 강화되면 ‘나’라는 내부와 ‘사회’라는 외부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자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요소를 제거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Stark and Traxler 1974, 25-27). 그러나 반대로 신체적 자아, 인격, 잠재적 역할, 직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체성 혼란이 강화되어 스스로를 제어하기 힘든 상황인 ‘정체성 위기’에 봉착하여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게 된다(Erikson 1950). 다만 지나친 자아정체성은 객관적인 파악을 흐리게 하여 사회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사회적응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지양해야 하며 합리적인 자아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Knight 2017, 1050). 그렇기에 사회심리학 발달이론은 사회적 배경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인지하기에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피력한다.

1) 심리성적 발달이론은 인간은 순간적인 만족과 행복을 지향하는 존재로써 타고난 자질이 존재하며, 이러한 본능과 동기를 통하여 성적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Elkatanwneh 2013).

1. 청소년기의 전·후기 구분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기본법」의 제3조 1항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9세부터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쳐 형성된 인간의 발달이론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육과 같은 제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전기(9-14세), 중기(15-18세), 후기(19-24세)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한다(김지경 2015, 2). 하지만 청소년 기본법의 구분은 정책대상자로서의 청소년의 관점에서 형성된 것이고, 각 법령과 행정규칙 및 이를 다루는 소관 부처가 추구하는 목적과 형식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상이하다. 가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닌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서는 13세에서 19세 미만이 청소년이다(박선권 2021, 4). 상기한 이유로 사회제도를 기반으로 청소년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데 국내와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해외의 의료·보건이나 아동관련기관은 비교적 일관되게 청소년기를 만 13세에서 18세 사이로 규정한다. 단지 청소년이라는 명칭에서 틴에이지(teenagers)와 청소년(adolescence), 청년(youth)이 다르며, 대부분이 1-2살 정도의 차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를 따르는 해외기관에는 대표적으로 ㉠ 연구기관(대학·학회·연구소), ㉡ 의료보건복지기구, ㉢ 기타 연구자 등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1>에 기재하였다.

<표 1> 해외의 청소년기의 기간별 정의

구분	명 칭	청소년 연령 (단위: 세)		
		전기	중기	후기
㉠	Johns Hopkins Medicine	13-18		
	Stanford Medicine Children's Health	13-18		
	University of Rochester	13-18		
	NorthShore University HealthSystem	13-18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0-13	14-17	18-21 ¹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12-18		
	Baylor College of Medicine	13-18+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13-19+		

구분	명 칭	청소년 연령 (단위: 세)		
		전기	중기	후기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13-18		
	Children's Hospital of Orange County	13-18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2-14 ²	-	15-17 ²
	World Health Organization	10-14	-	15-19
	National Association of County & City Health Office	10-14	-	15-19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	(12)13-(17)18 ³		
㉡	Curtis (2015)	11-13	14-17	18-25 ²
	Pate et al. (2021)	13-18		

주1: 부호 +는 해당 기간 이후로 청소년기가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주2: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기 청소년기를 young teen, 후기 청소년기를 teenagers라고 지칭하며, Curtis(2015)에서 후기 청소년기를 young adulthood로 결정함.

주3: 미국 보건부 차관보 누리집에서는 청소년기의 시작을 12-13세, 끝을 17-18세로 정의함.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보다 견고히 하려면 해외의 사례와 같이 의학, 복지학, 아동학처럼 적용하는 개념을 객관화하여 보수적으로 다른 자료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가 심리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바, 청소년기의 조작적 정의 과정에서 13-18세의 연령대에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우리나라의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특수성을 접목하였다. 먼저 만 13세의 경우 대다수가 사춘기를 겪으며 처음으로 사회로부터 '제약'이 발생한다는 걸 체감하고, 추상적인 개념의 사회를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성숙의 과정에 들어선다(강봉화 2002, 812-813; 김복환 외 2019, 51). 또한 6년의 초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더욱 길어지며, 또래집단과 교육 제도가 이들의 생활에 점차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임효진·이소라 2020, 119-121). 한편 만 18세의 경우 19세가 되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에 자신이 지닌 역량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게 되고,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각종 제약에 본격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정신적 소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다. 즉, 사회성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초기보다 개인적인 노력의 투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음을 자각하고 실제로 투입량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에 또래들과의 관계가 중학교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는 대신, 교사와 가족의 영향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문은식 2005, 1103-1105).

게다가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진학 관련 자료는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의 초·중·고교 진학률은 한국인의 진학률보다 2-3%p가량 낮으면서도 학교급이 상승할수록 진학률이 떨어지는 다문화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보여준다(여성가족부 2023, 8-9). 따라서 본 연구는 만 13세를 전기 청소년기의 대표적 집단으로, 만 18세를 후기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고찰

우리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은 다문화청소년이 여타 사회적 집단과 ‘지지(support)’라는 상호호혜 관계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시간체계(chronosystem)라는 다섯 가지의 범주를 두고 각각의 체계가 다른 체계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 개인의 발달에 개입한다고 설명한다(Bronfenbrenner 1979, 845-849). 다시 말하면, 가정과 지역 공동체, 사회를 포함한 여러 그룹이 개인의 발달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이론은 가족과 또래, 교사, 이웃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경험과 결과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체계들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면,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은 집단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지니는 독특하고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문화청소년들이 현지 문화를 수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두고 사회와의 성공적인 통합을 촉진하도록 노력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그들을 배척할 수도 있다.

1) 가족의 지지

대다수의 연구는 가족의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 정체성 발달과 정신 건강의 개선, 현지 적응력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Phinney and Devich-Navarro(1997)의 연구는 가족지지가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문화적 사회화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신소영·권성연(2022)도 다문화청소년 자녀들은 부모의 지지가 교사의 지지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Umaña-Taylor et al.(2009)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 적극적으로 자녀를 지지할수록 사회적 차별이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 및 우울증, 자존감 저하, 이탈, 학업능력 감소 등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데 (Benner et al 2019, 857-858), 가족의 지지가 이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가져다 주고 회복탄력성을 효과적으로 개선시켜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처하고 정신 건강의 증진을 돕는다고 말한다. Berry(2005)는 가족 구성원이 제공하는 지원과 지도가 자녀가 문화적 전환을 탐색하고 그들의 문화와 현지 문화 사이의 갈등을 관리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가족의 지지에는 열린 의사소통, 문화적 기대치의 조정, 현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술 습득과 같은 지원이 그 사례이다. 그렇게 가족이 일종의 지원군으로 작동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은 이질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높이고 생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또래의 지지

가족의 지지와는 다르게 또래의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존재한다. 이는 크게 정(+)의 관계, 무의미한 관계, 성별에 따른 관계의 차이로 구분된다. 먼저 이윤정(2019)의 연구는 다문화패널조사 4차자료를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여 친구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중학교 2학년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지지 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학업 성취를 조사한 장유진(2019)의 연구에서도 자신이 또래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높은 수준으로 자각하는 이들의 적응도와 학업성취능력이 더 뛰어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안선정 외(2013)는 대구·경북 지역과 서울·경기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152명의 설문조사를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적률상관계수 추출,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해당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자아존중감 또한 매개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기존 연구들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Baskin et al.(2010)도 다문화

중학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들과의 소속감이 외로움을 소폭 감소시키는 효과는 존재하나 그 수준이 미약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또래의 지지가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모상현(2018)은 전국 16개 시도의 중학교 2학년 다문화가정 학생 1,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사이의 관계에서 또래집단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또래의 지지가 남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한 반면, 여학생에게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반(-)의 관계를 가짐을 밝혔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하여 연령별 차이보다 성별의 차이에 따라 교사와 사회의 차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내포하며 추후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언급할, 본 연구의 핵심적 시사점이기도 하다.

3) 교사의 지지

선행연구에서는 교사의 지지도 가족의 지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안혜진(2019)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으로 다문화청소년패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6학년(3차년도)과 중학교 2학년(5차년도)과 다르게 중학교 1학년(4차년도)만이 교사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년별로 교육적 대응이 다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ngels et al.(2020)도 9학년에서 11학년까지의 730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행동 및 정서적 적극성을 도출하는 요인을 연구하여 교사의 지지가 직접적인 양(+)의 영향을, 선생님의 상호작용 시도와 규칙이 유의미한 양(+)의 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는 연령이나 분석과 같은 기준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지숙(2019)은 다문화청소년패널 5차년도 데이터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여 교사의 지지가 이들의 비행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 사이 교사지지의 매개효과는 찾지 못하였다. 반대로 박동진(2019)의 연구는 동 패널의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조절효과분석을 거쳐 교사의 지지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지닌다고 본다.

4) 이웃의 지지

이웃과 지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지지는 다문화청소년들의 탄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Olsson et al. 2003, 8). 특히 해외에는 지역사회의 지지 수준이 강력할수록 이들에 대한 호의적 관심과 성원이 증가하여 다문화집단의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차별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Werner 1995, 83).

특정 집단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문화에서 다문화집단은 자신의 거주지 및 활동지와 연관된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기 쉽다. 특히 기존의 다민족국가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에게서는 한국 사회라는 큰 틀 내에서 사는 모습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나, 외국인 혹은 다문화집단의 구성원은 이질적인 사회에서 다른 이웃들로부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내야 한다. 이 때문에 다문화집단은 더욱 집단 내에서의 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이웃과의 상호작용과 지원은 문화적 통합, 사회적 유대감 및 소속감을 촉진하여 편안함과 유연성(resilience)을 향상시킬 수 있다(심미영 외 2013, 248).

또한 지역사회 지원은 다문화 청소년에게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경험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Okamoto et al.(2009)가 강조한 것처럼, 문화적 다양성을 반기고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이나 이니셔티브는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그들의 문화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돕는다. 즉 지역사회 지원은 그들이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고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탄생시키면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3.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관한 고찰

심리학에서 적응(adjustment)은 다양한 욕구들(needs) 사이에서 혹은 그들의 욕구와 환경적 장애(envIRONMENTAL obstacles)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이나 동물의 행동적 프로세스이다.²⁾ 이는 삶의 도전과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Lazarus and Folkman(1984)에 따르면, 적응은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심리적

2) Britannica, The Editors of Encyclopaedia. "adjustment," Encyclopedia Britannica, 12 Jul. 2018, <https://www.britannica.com/science/adjustment-psychology>(접속일: 2023.6.1)

안녕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이 관점은 개인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재조정한다는 자발적인 조정과정의 역동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또한 적응은 자기조절(self-regulation)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Carver and Scheier(1998)의 연구에서 자기조절은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 감정 및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수정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때 이 개념은 자기인식(self-awareness), 자기통제(self-control) 및 자기성찰(self-reflection)과 같은 과정을 포함하며, 과거의 행위나 미래에 예상되는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검토가 스스로의 반응을 적절히 다스리고 적응과정을 유도하여 성공적인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적응은 이와 같은 개인 수준의 프로세스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또는 문화적 수준에서도 발생한다. 사회적 적응(social adjustment)은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공동체 또는 사회의 집단적 적응을 의미한다(Parsons 1951, 15). 즉, 사회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지내면서 일하고, 그들과의 만족스러운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에 참여하는 능력과 같이 사회의 요구, 제한 및 관습을 수용하는 행위적 태도인 것이다.³⁾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이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존하는 각종 주류민족사회의 시스템을 존중하고자 할 때,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기대의 정도에 따라 행위를 달리하면서 사회적 적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 국민적 소속감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나 또래집단 혹은 다문화청소년이 소속된 민족에서의 소속감을 주로 다루었다(양정은·함승환 2018, 60; 김주현·배선우 2020, 489; Wentzel 1997; 411; Rivas-Drake et al. 2014, 40; Celeste et al. 2019, 1603). 비고츠키(Lev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발달이론은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발달수준,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주변의 도움으로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발달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학습자와 교육자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실제발달수준과 잠재발달수준 사이의 근접발달영역이 현재발달수준으로

3) APA Dictionary of Psychology, "social adjustment," <https://www.britannica.com/science/adjustment-psychology>(접속일: 2023.6.1)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교육자의 역량에 따라 근접발달영역의 축소 여부가 달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공적 존재로써의 교사-학교와, 고유한 문화적 교육주체로써의 토래-민족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민적 소속감 또한 다문화청소년이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장은애·정현희 2022, 126-131). 이는 소속감이 사회적 연결과 수용에 대한 인간의 타고난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적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Maslow)의 욕구위계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에 따르면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는 생리적 욕구(biological and physiological needs)와 안전 욕구(safety needs) 다음으로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부분이다(Maslow 1943, 380-381). 여기서 국가는 경찰이나 소방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인의 문제를 공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한편,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여 개인이 사회에서 도태되어 국가의 생산성 약화와 능력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는 곧 안전 욕구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안정된 소속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또한 연구자는 개인이 소속감을 느낄 때 수용, 인정,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느끼며, 이는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실증연구도 사회적 적응을 위한 소속감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먼저 Baumeister and Leary(1995)와 Jetten et al.(2015)의 연구는 소속감이 강한 개인이 친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Helliwell et al.(2018)의 논문에서 소속감이 더 높은 수준의 웰빙과 더 낮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과 연결되어 전반적인 사회적 적응을 촉진함을 밝혔다. 한편 Jetten et al.(2017)에 따르면 개인이 소속감을 느낄 때 스스로 지역사회의 가치와 기대를 이해하고 관행을 내면화하여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가능성이 더 크다.

2) 주관적 기대감

먼저 동기부여능력(motivational force)의 두 축인 자기강화(self-enhancement)와 자기일관성(self-consistency)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Swann (1990)의 인지적 관점에 따르면, 주관적 기대(subjective expectation)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적응에 필수적이다.

연구자는 개인은 주관적인 기대와 견해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배경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주관적 기대가 개인에게 사회적 자극을 적절히 통제하고 이해하는, 일종의 ‘렌즈’ 역할을 하여 사회적 규범, 역할 및 기대에 대한 자체적인 기초를 만들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주관적 기대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의 다문화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형성함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종종 자신의 민족적 또는 문화적 배경과 더 큰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직면한다. 여기서 주관적 기대는 다문화청소년이 이러한 문화적 단서를 처리하고 이해하여 다문화 환경에서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틀을 제공한다(Phinney & Ong, 2007; 278).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신의 문화와는 다른 사회적 규범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판단하여 주류사회와의 조화를 유지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실증연구도 개인의 주관적 기대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였다. Dewall et al.(2011)의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에 긍정적인 기대를 가진 개인은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더 높은 생활수준과 사회생활에 대한 더 큰 만족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Rothman et al.(2011)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때 능동적인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지원을 찾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결과를 보였다.

게다가 주관적 기대는 사회적 도전과 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의 대처 전략과 적응과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은 스트레스를 동반한다(Berry 2006, 292-295).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적응적인 기대치를 가진 개인은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하고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구할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Folkman et al. 1986; 1001-1002).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과 지금까지 살아온 전반적인 삶의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의 사회 적응도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에드 디너(Ed Diener)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이러한 만족이 정서적 웰빙, 사회적 관계, 자기 수용, 개인적 열망의 성취감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개인의 행복, 만족감, 인지된 삶의 질에 대한 총체적인 척도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Diener 1984, 543-544).

일련의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맥락에서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Leung et al.(2008)과 Chen et al. (2013)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자존감, 심리적 웰빙, 동료 및 가족 구성원과의 긍정적인 관계와 같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적응 및 사회적 적응의 다양한 지표 사이에 정(+)적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반대로 Berry et al.(2006)은 낮은 삶의 만족도가 사회 통합의 어려움,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전반적으로 낮은 웰빙과 관련 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적응스트레스, 차별, 문화적 갈등 및 사회적 지원과 같은 요인은 다문화집단에 소속된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Leung et al. 2008, 132-133; Smokowski et al., 2011; 350-352). 이에 본 연구도 이러한 요인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이해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과 자원(resources)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III. 연구방법

1. 활용 자료

본 연구는 전기 청소년기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한 사회적 지지가 후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인 다문화청소년패널 1기패널 청소년 4차년도,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정확한 연구표본의 설계를 위하여 4차년도(2014년)의 표본들과 9차년도(2019년)의 표본들이 완전균형패널을 이루도록, 즉 1기와 2기 모두 동일한 다문화 청소년들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Stata 17.0의 'Spbalance' 명령어를 활용하여 완전한 균형패널(strongly balanced)을 이루도록 처치하였으며, 4차년도에 만 13세, 9차년도에 만 18세인 다문화 청소년들 1,016명을 최종 연구표본으로 결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각 1기와 2기의 다문화 청소년들은 모두 동일인이며 동일한 표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심리양상, 적응 양상의 변화를 추적하는 일종의 준 실험적 상황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공변인으로 연령은 투입할 수 없었으며 성비는 남학생이 49.7%, 여학생이 50.3%로 균형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수 측정방식 및 설명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적응’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의 분류를 위해 각각 4개, 5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때, 사회적 적응의 문항은 모두 4점 척도이나, 사회적 지지의 문항은 각각 4점 척도와 5점 척도의 문항들로 구분되어 용이한 비교를 위해 Stata의 ‘std’ 명령어를 활용하여 동일 척도를 갖도록 처리하였다. 사회적 적응의 문항은 모두 4점 척도로 동일하기에 별도의 표준화 처리는 하지 않았다. 아래의 <표 2>에 질문지 내용과 조작적 정의 방식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적응’으로 조작적 정의한 각 개념에 대한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나타내는 Cronbach의 α 계수가 사회적 지지의 경우 0.6761, 사회적 적응의 경우 0.7866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ronbach의 α 계수는 0.6을 기준으로, 0.6 미만이면 내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는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윤성훈, 2013; 이미영, 2017).

<표 2>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식

구분	조작적 정의	질문지 내용	신뢰도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0.6761
	포레지지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교사지지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다.	
	이웃지지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사회적 적응	소속감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0.7866
	주관적기대감 1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주관적기대감 2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삶의 만족도 1	나는 사는게 즐겁다.	
	삶의 만족도 2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주: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종단적 모형으로 확장시킨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하여 전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 양상에 따른 집단분류, 후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 양상에 따른 집단분류를 실시한 이후 영향요인에 따른 전이 양상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기존의 변수중심적 접근이 아닌 사람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인 잠재계층, 잠재프로파일분석과 같은 혼합 모형(mixture model)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추세이다(홍세희 외, 2023). 이는 변수 자체보다는 질문지의 응답패턴이 유사한 사람들을 같은 집단,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는 개인의 상태, 특성에 주목하는 분석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잠재전이분석은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종단적 확장 모형으로 두 시점, 1기와 2기에서의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이후 1기에서 2기로 넘어갈 때의 잠재프로파일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잠재전이분석은 2기 이상의 각각 시점의 잠재집단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이전 시점(1기)의 잠재계층이 이후 시점(2기)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 전이확률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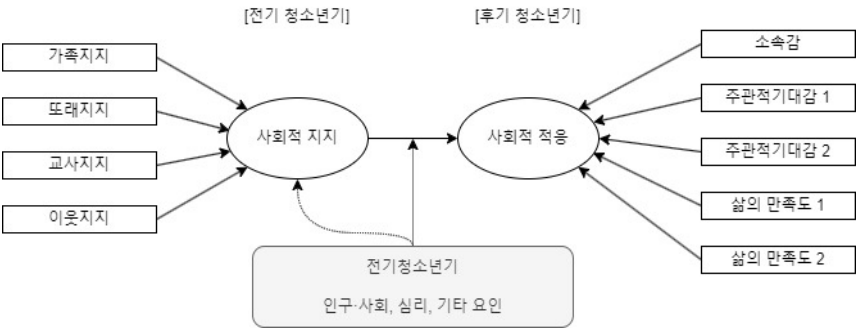
하지만 Asparouhov and Muthen(2014)은 전 시점의 잠재프로파일의 분류와 영향요인의 검증을 한번에 분석하는 1단계 추정 방법(one-step approach)의 경우 영향 요인의 투입 효과에 따라 잠재계층의 명확한 추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즉 공변인에 따라 잠재집단의 측정 모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Asparouhov and Muthen, 2014; Vermunt, 2010; 김나영, 윤현희, 2019). 더하여 공변인이 포함된 잠재전이분석의 경우, 1단계에서는 공변인을 포함하지 않고 오직 잠재프로파일의 지표 변수만을 투입하여 최적의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3단계 접근법(three-step approach)을 제안하였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변인을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 잠재전이분석을 수행하게 된다면 분류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3단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면 잠재프로파일의 분류와 영향 요인의 검증은 별개의 독립적인 절차이므로 영향 요인이 잠재프로파일의 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Asparouhov and Muthen(2014)이 제안하였듯, 분류 오류를 고려하는 동시에 공변인의 영향력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잠재집단을 분류하는 3단계 분석 방법(3-step approach)을 활용하였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공변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추정한 잠재프로파일에 각각의 개인을 할당하여 분류오류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분류오류를 고정한 뒤 공변인의 영향을 검증한다. 해당 접근법을 적용한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기 청소년기인 2014년에 경험한 사회적 지지와 후기 청소년기인 2019년의 사회적 적응의 전이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적응 정도의 연관성, 그리고 공변인의 영향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더불어, 두 시점의 잠재집단 분류에 있어 전기 청소년기의 인구사회, 심리적 요인 및 기타 특성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데이터 전처리에는 Stata 17.0을, 잠재프로파일과 잠재전이분석에는 Stata의 ‘gsem’ 명령어와 R의 ‘tidyLPA’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집단의 수를 한 개씩 늘리면서 최적의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AIC, BIC, SABIC를 통해 측정한 정보지수와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는 Entropy를 통한 분류의 질, BLRT를 활용한 모형비교검증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구하는데, AIC와 BIC, SABIC의 수치가 작을수록, Entropy가 클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받는다. BLRT 방법은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k-1개인 경우와 k개인 경우를 비교해 차이를 검증하는 절차로, BLRT 값의 p-value가 유의한 경우 k-1개의 모형이 아닌 k개의 모형을 택한다 (윤소진 외, 2022).

<그림 1> 연구 Figure



IV. 연구결과

1. 잠재프로파일 개수의 결정

본 연구에서는 전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와 후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의 적절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정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2개에서 5개까지 늘려가며 정보지수(AIC, BIC, SABIC)와 분류의 질(Entropy)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 확인하였고 해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잠재프로파일의 개수를 결정하였다.

〈표 3〉을 보면 entropy 값은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2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값은 일반적으로 0.8 이상인 경우를 좋은 분류라고 볼 수 있다(김나영, 윤현희, 2019).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정보지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일반적으로 잠재집단이 증가할수록 정보지수는 감소하기에 잠재집단을 한 개 늘렸을 때 정보지수의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점을 최적의 잠재프로파일의 수로 고려할 수 있다(윤소진 외, 2022). 전기 청소년기 사회적지지의 잠재프로파일이 4개에서 5개로 증가할 때 정보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잠재프로파일의 소속 비율이 5% 미만인 계층이 있어 5계층 모형을 연구에 투입하기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Berlin, Williams, Parra, 2014). Entropy의 값, BLRT의 p-value, 그리고 소속 비율을 고려하면 3개 혹은 4개의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지수를 기준으로 놓았을 경우 4개의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적절하다. 하지만 분류의 사례 수가

〈표 3〉 전기청소년기(2014년) 사회적지지의 잠재프로파일 분류기준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의 수			
		2개	3개	4개	5개
정보지수	AIC	11036.496	10367.211	10224.107	8227.338
	BIC	11100.50	10455.84	10337.35	8365.20
	SABIC	11059.214	10398.667	10264.300	8267.269
분류의 질	Entropy	0.63	0.99	0.94	0.95
모형비교검증	BLRT p	0.0000	0.0000	0.0000	0.0000
분류율	1계층	0.5529	0.2460	0.2460	0.2460
	2계층	0.4470	0.3592	0.3592	0.3592
	3계층	-	0.3946	0.1080	0.1029
	4계층	-	-	0.2866	0.0125
	5계층	-	-	-	0.2791

4계층 모형보다 3계층 모형에 더 적절히 분포되어,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성, 통계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전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의 잠재프로파일은 3개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를 보면 후기 청소년기 사회적적응의 잠재프로파일이 2개에서 3개로 증가할 때 정보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entropy의 값은 추정이 불가능한 5계층 모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0.8 이상으로 양호하다. 이 때, 사회적 적응의 잠재프로파일이 3개에서 4개로 증가하면 오히려 정보지수는 증가하였으며 BLRT의 p-value 역시 유의하지 않아, 통계적 기준에 따라 4계층 모형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계층 모형의 경우 분류의 사례 수가 적절히 분포되어 해석 가능성의 측면에서 우수하나 잠재프로파일의 개수를 2개에서 3개로 늘릴 때 정보지수가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2개보다 3개의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석 가능성, 통계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의 잠재프로파일은 3개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각의 전기 청소년기의 ‘사회적지지’의 잠재프로파일, 후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의 잠재프로파일은 각 프로파일의 소속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Berlin, Williams, Parra, 2014; 김지윤, 안새별, 홍세희, 2023)을 모두 만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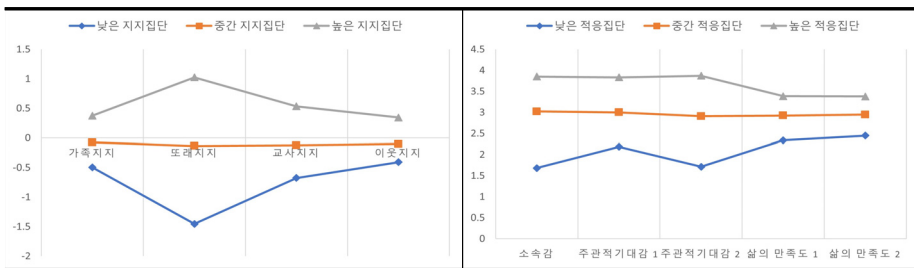
〈표 4〉 후기청소년기(2019년) 사회적적응의 잠재프로파일 분류기준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의 수			
		2개	3개	4개	5개
정보지수	AIC	13507.63	11673.61	12726.52	(추정불가)
	BIC	13586.41	11781.93	12864.38	
	SABIC	13535.59	11712.06	12775.45	
분류의 질	Entropy	0.83	0.99	0.90	
모형비교검증	BLRT <i>p</i>	0.0000	0.0000	1.0000	
분류율	1계층	0.6566	0.0518	0.1407	
	2계층	0.3433	0.6318	0.4943	
	3계층	-	0.3163	0.1670	
	4계층	-	-	0.1978	
	5계층	-	-	-	

2. 잠재프로파일의 특성

아래의 <표 6>과 <표 7>은 각각 2014년 사회적지지 잠재프로파일과 2019년 사회적적응 잠재프로파일별로 하위변수의 평균과 소속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 전기 청소년기의 사회적지지의 첫 집단은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이웃지지 모두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해당 집단을 ‘낮은 지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이웃지지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을 보여 ‘중간 지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큰 특징으로는 높은 지지집단에서는 또래지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낮은 지지집단에서는 또래지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세 번째 집단의 경우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이웃지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높은 지지집단’으로 명명하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후기 청소년기 사회적적응의 첫 집단은 하위 변수들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를 ‘낮은 적응집단’으로, 두 번째 집단은 하위 변수들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이므로 ‘중간 적응집단’, 세 번째 집단은 하위 변수들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기에 ‘높은 적응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5>에 잠재프로파일의 형태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표 5> 다문화청소년의 2014년(좌) 사회적 지지와 2019년(우) 사회적 적응의 잠재프로파일 형태



<표 6> 전기청소년기(2014년) 사회적지지의 잠재프로파일 특성

	낮은 지지집단		중간 지지집단		높은 지지집단	
	M	SD	M	SD	M	SD
가족지지	-0.4960	0.0593	-0.0731	0.0491	0.3758	0.0468
또래지지	-1.4520	0.0151	-0.1336	0.0125	1.0269	0.0119
교사지지	-0.6750	0.0554	-0.1244	0.0458	0.5340	0.0437
이웃지지	-0.4063	0.0602	-0.1004	0.0498	0.3447	0.0475

〈표 7〉 후기청소년기(2019년) 사회적적응의 잠재프로파일 특성

	낮은 적응집단		중간 적응집단		높은 적응집단	
	M	SD	M	SD	M	SD
소속감	1.6813	0.0651	3.0222	0.0189	3.8530	0.0300
주관적기대감 1	2.1854	0.0749	3.0001	0.0214	3.8334	0.0322
주관적기대감 2	1.7153	0.0733	2.9110	0.0215	3.8705	0.0337
삶의 만족도 1	2.3411	0.0926	2.9273	0.0231	3.3868	0.0336
삶의 만족도 2	2.4498	0.0905	2.9489	0.0242	3.3787	0.0354

3. 횡단적 영향요인 검증

2014년의 다문화 청소년 사회적지지 잠재프로파일의 분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아래의 〈표 8〉을 통해 살펴보자. 이때 기준집단은 ‘높은 지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남성일수록, 자아존중감, 성취동기가 낮을수록,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지지집단보다 낮은 지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남성일수록,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가 낮을수록 높은 지지집단에 비해 중간 지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성별과 자아존중감, 성취동기가 모든 경우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관적 가정형편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8〉 전기 청소년기 사회적 지지 잠재프로파일 분류 영향요인

2014년 전기 청소년기				
영향요인	낮은 지지		중간 지지	
	Coef.	Std. Error	Coef.	Std. Error
성별(남성=0)	-0.7461***	0.2010	-0.2751*	0.1583
지역규모(대도시=0)	-	-	-	-
중소도시	-0.5097**	0.2483	-0.2777	0.2006
읍/면/부	0.0979	0.2680	0.1674	0.2134
주관적 가정형편	0.1251	0.1359	0.0430	0.1075
자아존중감	-1.9802***	0.2570	-1.0340***	0.1915
우울감	1.1302***	0.2235	0.4044	0.1869
사회적 위축	0.6318***	0.1640	0.1427	0.1213
성취동기	-1.3200***	0.2812	-0.8859***	0.2094
cons	6.5940***	1.1863	5.2817***	0.9499

주: * p<0.1 ** p<0.05 *** p<0.01

4. ‘사회적 지지-사회적 적응’의 잠재프로파일 전이양상

아래의 <표 9>을 보면, 2014년에서 2019년으로 변화할 때 낮은 지지집단의 66.8%가 중간 적응집단으로 이동하였으며, 중간 지지집단의 68.2%, 높은 지지집단의 56.8% 역시 중간 적응집단으로 이동하여 전기 청소년기 사회적 지지의 잠재프로파일은 중간 적응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적응집단을 기준으로 볼 때 낮은 지지집단이 낮은 적응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8%로 가장 높았으며 중간 지지집단과 높은 지지집단이 낮은 적응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은 각각 4.1%, 4.2%로 유사하다. 높은 적응집단을 기준으로 하면 낮은 지지집단이 높은 적응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은 25.2%로, 중간 지지집단에서 높은 적응집단으로 전이될 확률(27.6%)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높은 지지집단이 높은 적응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은 38.9%로 높은 적응집단을 기준으로 놓았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낮은 지지집단, 중간 지지집단에서 높은 적응집단으로 전이될 확률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잠재전이 양상

		2019년		
		낮은 적응	중간 적응	높은 적응
2014년	낮은 지지	8%(20명)	66.8%(167명)	25.2%(63명)
	중간 지지	4.1%(15명)	68.2%(249명)	27.6%(101명)
	높은 지지	4.2%(17명)	56.8%(228명)	38.9%(156명)

주: 2014년은 전기 청소년기, 2019년은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함.

<표 10>은 사회적 지지-사회적 적응의 잠재프로파일 전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공변인들의 영향을 검증한 결과표이다. 이 때 공변인은 모두 2014년 전기 청소년기 기준 변수이며 앞의 <그림 1> 연구 Figure을 참고하라. 기준집단은 ‘높은 적응집단’이다. 낮은 지지집단에 있었던 청소년들의 경우 우울감이 높을수록 높은 적응집단보다 낮은 적응집단과 중간 적응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높은 지지집단에 있었던 청소년들의 표본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다수 도출되었는데, 여성일수록, 전기 청소년기에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가정형편이 낮았을수록, 전기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전기 청소년기 우울감이 높을수록 높은 적응집단보다 낮은 적응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앞의 횡단적 영향요인 검증을 보면 여성일수록 높은 지지집단에 속하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전기 청소년기에 높은 지지집단에 속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종단적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면 오히려

여성일수록 낮은 적응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추후 결론 및 시사점에서 언급 하겠지만, 이는 단순히 높은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회적 적응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성별에 다른 접근방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표 10〉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적응의 전이 영향요인

2014년 전기 청소년기		2019년 후기 청소년기			
		낮은 적응		중간 적응	
영향요인		Coef.	Std. Error	Coef.	Std. Error
낮은 지지	성별(남성=0)	-0.4588	0.6647	-0.3732	0.3324
	지역규모(대도시=0)	-	-	-	-
	중소도시	0.3752	0.7749	0.4289	0.4092
	읍/면/부	-1.5222	1.0312	-0.1423	0.4123
	주관적 가정형편	-0.3752	0.4522	-0.2965	0.2272
	자아존중감	0.9973	0.7927	-0.1856	0.4133
	우울감	3.2800***	0.7928	0.7796**	0.3818
	사회적 위축	1.1166*	0.6773	0.1881	0.2930
	성취동기	0.0231	0.8912	0.7573*	0.4591
	cons	-13.070***	3.8746	-1.8156	1.8793
중간 지지	성별(남성=0)	0.3875	0.4036	0.5209*	0.2965
	지역규모(대도시=0)	-	-	-	-
	중소도시	-0.2102	0.5793	-1.0624**	0.4351
	읍/면/부	-0.7305	0.6148	-1.1294***	0.4403
	주관적 가정형편	-0.5927**	0.2887	-0.2864	0.2173
	자아존중감	-0.0391	0.5134	-0.1194	0.3722
	우울감	0.7592	0.4751	0.1325	0.3505
	사회적 위축	-0.2745	0.3606	-0.2126	0.2524
	성취동기	-0.4632	0.5499	-0.1491	0.3998
	cons	2.1258	2.4555	3.8097**	1.8178
높은 지지	성별(남성=0)	0.5526**	0.2762	0.9263***	0.3528
	지역규모(대도시=0)	-	-	-	-
	중소도시	0.2195	0.3869	-0.5683	0.4454
	읍/면/부	-0.3293	0.4074	-0.5941	0.4697
	주관적 가정형편	-0.3249*	0.1832	-0.5120**	0.2436
	자아존중감	-0.7524**	0.3570	-1.0280**	0.4417
	우울감	1.0953***	0.4045	0.9126*	0.4882
	사회적 위축	0.2206	0.1924	-0.3499	0.2668
	성취동기	-0.5035	0.3348	-0.4781	0.4131
	cons	3.5768	1.7930	5.5345***	2.2727

주: * p<0.1 ** p<0.05 *** p<0.01

V.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사회적 지지 혹은 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분석한 연구들은 횡단분석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종단모형을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또한 설령 종단모형으로 확장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이 겪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적응을 분석한 기존의 변수 중심적 연구들과는 다르게 다문화 청소년의 전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적응의 연관성을 잠재프로파일,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하여 탐색한 시도는 본 연구가 최초라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 청소년기에 다문화 청소년이 겪은 사회적 지지와 후기 청소년기에 들어선 이들의 사회적 적응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이는 5년이라는 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기에 겪는 사회적 지지는 후기 청소년기의 다문화 청소년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낮은 지지집단에 속했던 이들이 낮은 적응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은 8%로, 중간 지지집단과 높은 지지집단이 낮은 적응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인 4%와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낮은 지지집단에서 높은 적응집단으로 전이될 확률과 중간 지지집단에서 높은 적응집단으로 전이될 확률, 높은 지지집단에서 높은 적응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은 각각 25.2%, 27.6%, 38.9%로 산출되어, 전기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회에 적응하기 더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간의 사회적 맥락이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의 형성에 개입한다는 Erikson (1950)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둘째, 2014년 전기 청소년기의 사회적지지 잠재프로파일의 분류에 성별, 자아존중감, 성취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성취동기가 낮을수록 낮은 지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추후 언급하겠지만 특히 흥미로운 점은 전기 청소년기에는 남성청소년이 여성 청소년에 비해 높은 사회적 지지를 느낄 확률이 낮았으나, 전기 청소년기에 높은 지지집단에 포함된 청소년들의 집단에서는 후기 청소년기에 남성 다문화 청소년이 여성 다문화 청소년보다 높은 적응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결과로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인지할수록 사회 적응력이 뛰어나다'라는 일관되고 총체적인 기존의 연구에 반하는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높은 지지집단에 속했던 표본을 대상으로 2014년의 전기청소년기 공변인이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 여성청소년인 경우, ㉡ 전기에 자각한 주관적인 경제적 지위와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 우울감이 높았던 경우 낮은 적응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먼저 ㉠에 관하여 모상현(2018)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다른 사회구성원의 지지보다 또래의 지지에서 성별의 차이점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사회적 민감도가 더욱 큰데, 학교생활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또래집단과 오랜 시간을 지내는 여성청소년이 후기에서도 또래지지의 수준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오현숙·Goth·민병배 2008, 402-403). 하지만 통계청의 다문화학생 진학률을 살펴보면 다문화 학생의 진학률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떨어진다.⁴⁾ 즉 ㉡의 결과는 진학하면서 같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또래가 소폭 줄어들면서 지지를 받을 집단의 풀(pool)이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충분히 교육적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진학을 장려하면서도 이들이 문화적 이질감으로 주류사회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다문화 교육지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다문화 여성 청소년이 받는 지지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단순한 공감과 단방향 지원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Okamoto et al.(2009)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문화 청소년에게 우리나라 지역사회가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각계각층의 지원이 다문화 여성 청소년 개개인이 가지는 능력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일시적인 심리적 안정에만 효과적이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지윤 외(2014)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동화주의에 기반한 것과 정착과 같은 순간적인 문제 해결 이후 사후 대책이 취약한 것을 지적하면서 온정주의적이고 분절적인 기조를 비판하였다. 따라서 다문화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성별에 따른 세심한 정책목표 설정과 같은 근본적인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으로 ㉢은 Rothman et al.(2011)과 Chen et al. (2013)의 실증연구를 지지한다. 우선 주관적인 경제적 위치가 높다고 자각할수록 개인의 기대치도 더불어 상승하게 된다. 이때 자신의 사회적 배경에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는 청소년이

4) 다문화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진학비율은 국민 전체보다 2-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의 3.2%를 차지하여 여전히 극소수집단인 현 시점에서 진학률의 저하는 주변 또래의 지지가 가능한 집단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132851371\(2023.6.27.\)](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132851371(2023.6.27.))

능동적인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고,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사회에 자신이 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도록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자연스럽게 사회의 적응도가 향상된다. 한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주류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적어져 나와 다른 문화를 접하더라도 문화적 회복력이 빨라 금방 변화에 적응하여 삶의 만족도, 적응 정도가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㉔은 Berry et al.(2006)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우울감과 같은 문제가 악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Berry et al.(2006)은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를 하락시키고, 낮아진 삶의 만족도는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동질감이 더욱 떨어질 경우 이 스트레스의 수준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Berry 2006, 292-295), 이는 또다시 삶의 만족도를 하락시키는 부정적인 순환구조에 청소년을 가둘 수 있다. 이에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이 두드러지는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권고하고,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경우 정부의 빈곤퇴치 대응이 정신건강 회복지원 프로그램과 동시에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다시금 악순환 구조에 편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있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한계점은 1기와 2기만을 종단분석에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가령 2014년~2019년의 표본을 모두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전이양상과 공변인의 영향 파악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둘째, 모두 동일한 연령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균형패널을 이루도록 처치하여 연령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람중심적 접근법인 잠재전이분석을 통하여 국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적응의 연관성, 그리고 공변인들의 영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연구결과가 갖는 시사점을 확인하고 가족이나 또래를 넘어 지역사회와 정부가 갖춰야 할 인식과 대응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차후 이 연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가령 다문화 패널조사 데이터와 해당 시기의 지역별 거시 데이터를 결합한 다차원적인 후행 연구가 밝혀낼 것으로 기대해 본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가 문화적 다양성을 진정으로 포용하는 것에 이번 연구가 그 기반이 되어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봉화(2002), “청소년의 여가제약 인지,”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7(0): 807-816.
- 김나영·윤현희(2019),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한 청소년의 다문화시민성 변화 양상 및 영향요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3): 525-553.
- 김미나(2009),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 정책 비교 연구,” 『행정논총』, 47(4): 193-223.
- 김복환·홍석기·하문선(2019), “초기 청소년의 성장신념, 자기효능감 및진로성숙도의 종단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5): 39-59.
- 김주연·배선우(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 소속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지지 원과 지지 유형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489-509.
- 김지윤·강충구·이희철(2014), “닫힌 대한민국: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이슈브리프, 0(4): 1-14, 아산정책연구원.
- 김평화·윤희미(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 25-53.
- 김현미(2015), “귀화 이주민과 문화적 권리,” 『한국문화인류학』, 48(1): 89-118.
- 모상현(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 및 또래친구 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문화포럼』54: 67-93.
- 문은식(2005),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9(4): 1087-1108.
- 박동진(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융합정보논문지』, 9(9): 175-184.
- 박종대·박지혜(2014), “한국 다문화정책의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28(1): 35-63.
- 백지숙·김진·정효경(2014), “인구배경학적 요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 전남지역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 -,” 『청소년시설환경』, 12(1): 127-141.

- 신소영·권성연(2022),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구조관계분석,” 『평생학습사회』, 18(1): 67-91.
- 심미영·이들녀·박종옥(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5(0): 233-254.
- 안선정·이현철·임지영(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안혜진(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789-807.
- 양경은·함승환(2018), “이주배경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 소속감 격차: 다문화정책에 대한 합의,” 『사회복지정책』, 45(1): 60-84.
- 여성가족부(2023),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1-11.
- 여성가족부(2023), 『2023 청소년 통계』, 1-93.
- 오현숙·K. Goth·민병배(2008), “독일과 한국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391-407.
- 윤성훈(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문화연구』, 4(1):85-103.
- 이미영(2017), “중년층의 노후준비 감사성향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12(3):291-304.
- 이윤정(2019),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교사·친구지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 1197-1210.
- 이지숙(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비행과의 관계: 국가 정체성,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분석,” 『학교사회복지』, 0(48): 1-24.
- 임효진·이소라(2020), “그릿(Grit)을 매개로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부모, 교사, 교우 변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 『한국초등교육』, 31(1): 109-127.
- 장유진(2019),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학업성취의 차이,” 『글로벌교육연구』, 11(4): 26-51.
- 장은애·정현희(2022),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발달유형과 예측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9(2): 121-154.

- 전재수·임운택(2017), “대구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발달 경험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0(2): 25-63.
- 통계청(2022),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1-43.
- 홍기원(2009), “한국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23(3): 169-189.
- 홍세희·윤소진·하승혁·민동환(2022), “고등학생의 주관적 웰빙 잠재프로파일 연구: 영향요인 탐색 및 학교중퇴의도 차이 검증,” 『통계연구』, 27(3): 79-106.
- Asparouhov, Tihomir, and Bengt Muthén(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Using the BCH method in Mplus to estimate a distal outcome model and an arbitrary secondary model,” Mplus web notes, 21(2): 1-22.
- Baskin, T. W., B. E. Wampold, S. M. Quintana, and R. D. Enright(2010), “Belongingness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Loneliness and Potential Depression in a Multicultural Middle Schoo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8(5): 626-651.
- Baumeister, R. F. and M. R. Leary(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enner, A. D., Y. Wang, Y. Shen, A. E. Boyle, R. Polk, and Y. P. Cheng(2018), “Racial/Ethnic Discrimination and Well-being during Adolescence: A meta-analytic review,” The American Psychologist, 73(7): 855-883.
- Berlin, Kristoffer S., Gilbert R. Parra, and Natalie A. Williams(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2): longitudinal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88-203.
- Berry, J. W.(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 Berry, J. W.(2006), “Acculturative stress,” In P. T. P. Wong and L. C. J. Wong (Eds.), Handbook of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pp. 287-298), Spring Publications.

- Berry, J. W., J. S. Phinney, D. L. Sam, and P. Vedder(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5(3): 303-332.
- Boelema, S. R., Z. Harakeh, J. Ormel, C. A. Hartman, W. A. M. Vollebergh, and M. J. E. van Zandvoort(2014), "Executive Functioning Shows Differential Maturation from Early to Late Adolescence: Longitudinal Findings from a TRAILS Study," *Neuropsychology*, 28(2): 177-187.
- Bronfenbrenner, U(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 Carrey N.(2010), "The Two Ericksons: Forgotten Concepts and what Constitutes an Appropriate Professional Knowledge Base in Psychiatry," *Journal of the Canadi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9(4): 248.
- Celeste, L., G. Baysu, K. Phalet, and L. Meeussen(2019), "Can School Diversity Policies Reduce Belonging and Achievement Gaps Between Minority and Majority Youth? Multiculturalism, Colorblindness, and Assimilationism Assesse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5(11): 1603-1618.
- Chen, B., M. Vansteenkiste, W. Beyers, L. Boone, E. L. Deci, J. Van der Kaap-Deeder, B. Duriez, W. Lens, L. Matos, A. Mouratidis, R. M. Ryan, K. M. Sheldon, B. Soenens, S. Van Petegem, and J. Verstuyf(2015),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Need Frustration, and Need Strength Across Four Cultures," *Motivation and Emotion*, 39(0): 216-236.
- Clark-Lempers, D. S., J. D. Lempers, and C. Ho(1991),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3): 296-315.
- Curtis, A. C.(2015), "Defin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and Family Health*, 7(2): 1-39.
- DeWall, C. N., R. S. Pond Jr., W. K. Campbell, and J. M. Twenge(2011), "Tuning in to Psychological Change: Linguistic Markers of Psychological Traits and Emotions over Time in Popular U.S. Song Lyrics,"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5(3): 200-207.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Elkatawneh, H.(2013), "Freud's Psycho-Sexual Stages of Development," <https://ssrn.com/abstract=2364215>(2023.5.23.)
- Engels, M. C., K. Phalet, M. C. Gremmen, J. R. Dijkstra, and K. Verschueren (2020), "Adolescents' Engagement Trajectories in Multicultural Classroom: The Role of the Classroom contex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69(0): 1-14.
- Erikson, E. H(1950), *Childhood and Society*, W W Norton & Co.
- Folkman, S., R. S. Lazarus, C. Dunkel-Schetter, A. DeLongis, and R. J. Gruen(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92-1003.
- Ge, X. and R. D. Conger(1999), "Adjustment Problems and Emergi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from Early to Late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3): 429-459.
- Greenberger, E. and C. Chen(1996),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and Depressed Mood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A Comparison of European and Asian Americans," *Developmental Psychology*, 32(4): 707.
- Helliwell, J. F., R. Layard, and J. D. Sachs(2018), *World Happiness Report 2018*,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Jetten, J., N. R. Branscombe, S. A. Haslam, C. Haslam, T. Cruwys, J. M. Jones, L. Cui, G. Dingle, J. Liu, S. Murphy, A. Thai, Z. Walter, and A. Zhang(2015), "Having a Lot of a Good thing: Multiple Important Group Memberships as a Source of Self-Esteem," *PLOS ONE*, 9(5): e97869.
- Jetten, J., S. A. Haslam, T. Cruwys, K. H. Greenaway, C. Haslam, and N. K. Steffens(2017), "Advancing the Social Identity Approach to Health and Well-Being: Progressing the Social Cure Research Agenda,"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7): 789-802.
- Knight, Z. G.(2017), "A Proposed Model of Psychodynamic Psychotherapy Linked to Erik Erikson's Eight Stages of Psychosocial Development,"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4(5): 1047-1058.

- Lempers, J. D. and D. S. Clark-Lempers(1992), "Young,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omparisons of the Functional Importance of Five Significant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1): 53-96.
- Leung, C. Y.-W., C. McBride-Chang, B. P.-Y Lai(2004), "Relations among Maternal Parenting Style, Academic Competence, and Life Satisfaction in Chinese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2): 113-143.
- Maslow, A. H.(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Okamoto, J., A. Ritt-Olson, D. Soto, L. Baezconde-Garbanati, and J. B. Unger(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ubstance Use Among Latino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33(6): 718-727.
- Olsson, C. A., L. Bond, J. M. Burns, D. A. Vella-Brodrick, and S. M. Sawyer(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1), 1-11.
- Pate, J., I. Cummins, K. Cooper, J. Mooney, M. C. McLeod, and S. Gould(2022), "Evaluation of Sports-Related Concussion in Children (5-12) and Adolescents (13-18)," *Neurology*, 98(1): S12-S13.
- Phinney, J. S. and A. D. Ong(2007),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Ethnic Identity: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3): 271-281.
- Phinney, J. S. and M. Devich-Navarro(1997), "Variations in Bicultural Identification among Afric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7(1): 3-32.
- Rivas-Drake, D., E. K. Seaton, C. Markstrom, S. Quintana, M. Syed, R. M. Lee, S. J. Schwartz, A. J. Umaña-Taylor, S. French, T. Yip, and Ethnic and Racial Identity in the 21st Century Study Group(2014), "Ethnic and Racial Identity in Adolescence: Implications for Psychosocial, Academic, and Health Outcomes," *Child development*, 85(1): 40-57.

- Rothman, A. J., A. S. Baldwin, A. W. Hertel, and P. T. Fuglestad(2011), "Self-Regulation and Behavior Change: Disentangling Behavioral Initiation and Behavioral Maintenance," In K. D. Vohs and R. F. Baumeist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pp. 106-122), The Guilford Press.
- Smokowski, P. R., C. B. R. Evans, K. L. Cotter, and K. C. Webber(2014), "Ethnic Identity and Mental Health in American Indian Youth: Examining Mediation Pathways Through Self-esteem, and Future Optimis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0): 343-355.
- Stark, P. A. and A. J. Traxler(1974), "Empirical Validation of Erikson's Theory of Identity Crises in Late Adolescence," *The Journal of Psychology*, 86(1): 25-33.
- Swann, W. B., Jr.(1990), "To be Adored or to be Known? The Interplay of Self-Enhancement and Self-Verification," In E. T. Higgins and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2(0): (pp. 408-448), The Guilford Press.
- Umaña-Taylor, A. J., M. A. Gonzales-Backen, and A. B. Guimond(2009), "Latino Adolescents' Ethnic Identity: Is There a Developmental Progression and Does Growth in Ethnic Identity Predict Growth in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80(2): 391-405.
- Vermunt, Jeroen K(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 Wentzel, K. R.(1997), "Student Motivation in Middle School: The Role of Perceived Pedagogical Car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3): 411-419.
- Werner, E. E.(1995), "Resilience in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3): 81-84.
- Windle, M(1990), "A Longitudinal Study of Antisocial Behaviors in Early Adolescence as Predictors of Late Adolescent Substance Use: Gender and Ethnic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1): 86-91.

- <https://www.hopkinsmedicine.org/health/wellness-and-prevention/the-growing-child-adolescent-13-to-18-years>(2023.6.2.)
- <https://www.stanfordchildrens.org/en/topic/default?id=the-growing-child-adolescent-13-to-18-years-90-P02175>(2023.6.2.)
- <https://www.urmc.rochester.edu/encyclopedia/content.aspx?contenttypeid=90&contentid=P02175>(2023.6.2)
- <https://www.northshore.org/pediatrics/ages-and-milestones/teenager-13-18-years/>(2023.6.2)
- <https://www.healthychildren.org/English/ages-stages/teen/Pages/Stages-of-Adolescence.aspx>(2023.6.2)
- <https://medlineplus.gov/ency/article/002003.htm>(2023.6.2)
- <https://www.bcm.edu/research/research-centers/center-for-primary-care-prevention-and-population-health-research/fasd-prevention/management/adolescence>(2023.6.2.)
- <https://www.aihw.gov.au/getmedia/b35f4a71-751e-4be5-8576-756451f53bb3/mp-thdawoacayp-c04.pdf.aspx>(2023.6.2)
- <https://gdc.unicef.org/resource/growing-child-adolescent-13-18-years> (2023.6.3)
- <https://www.choc.org/primary-care/ages-stages/13-to-18-years/>(2023.6.3)
- <https://www.cdc.gov/ncbddd/childdevelopment/positiveparenting/adolescence.html>(2023.6.3.)
- <https://www.cdc.gov/ncbddd/childdevelopment/positiveparenting/adolescence2.html>(2023.6.3)
- https://www.who.int/health-topics/adolescent-health#tab=tab_1(2023.6.3)
- <https://opa.hhs.gov/adolescent-health/mental-health-adolescents#7a> (2023.6.3)
- <https://www.naccho.org/uploads/downloadable-resources/17-03-Comprehensive-Adolescent-Health.pdf>(2023.6.3)